금주의 법구-〈불유교경〉
권력자와 결탁하여
서민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단정히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0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2호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조계종도 '직선제' 열망 제도권 문턱 못 넘다

여론조사 80.5% '찬성' 중앙종회는 안건 이월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가 법제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계종의 혁신적 변화로 기대를 모은 '총무원장 직선제'는 스님 80% 이상이 찬성했으나 중앙종회에서 논란 끝에 이월됐다. 직선제에 대한 종도 열망이 극명히 드러난 만큼 제도 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선제 특위 구성 '잰걸음' 보였지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7차 정기회를 열고 상정된 직선제 관련 종헌 개정안을 3월 종회로 이월시켰다.

법제화가 무산된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는 조계종이 종도들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대중공사에서 60%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여론 속에 중앙종회는 직선제 특위를 구성해 법제화를 모색했다.

직선제 특위는 수차례 회의 끝에 승랍 10년 이상인 중덕 · 정덕 법계 이상의 8000여 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종헌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불교계 사상 최초로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승랍 10년 이상, 중덕 · 정덕 법계 이상 8000여 명 중 비구(534명) · 비구니(466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로 직선제 찬성 의사를 물은 것이다.

사상 첫 여론조사, 스님 80.5% 지지

11월 8일 중앙종회 정기회 속개에 앞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직선제가 대중공사 당시 보다 훨씬 높은 80.5%의 지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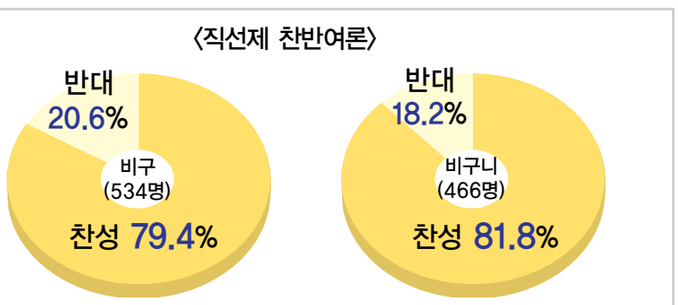
조사결과 법계별로는 대종사가 40%로 직선제 찬성률이 가장 낮았고, 종사 77%, 종덕 81.7%, 대덕 83.9%, 중덕 83.3% 순으로 나타나 법계가 낮을수록 직선제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이 직선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현행 간선제에서 비구 스님에 비해 선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비구니 스님들은 명덕 81.8%, 현덕 85.2%, 혜덕 90.5%, 정덕 78.6%로 오히려 높은 법계에서도 직선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세부법령 개정 부담감 작용

이 같은 내용에도 종회에서는 종헌 개정안 상정과 함께 이월하자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월 사유는 앞서 상정된 추첨제에 관한 종헌 개정안과 직선제 종헌 개정안의 발의 의원이 일부 겹친다는 것과 선거법 개정 등 실질적인 개정 절차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다.

〈직선제 찬반여론〉



기득권 내려놓기 실패 비판
경과 공개 및 표결 없이 이월
직선제 특위위원 전원 사퇴
추진력 잃어 법제화 불투명
"장기적 시각서 연구 필요"

이런 상황에서 추첨제 종헌 개정안을 발의한 초격 스님은 이월에 동의한 반면 직선제 종헌 개정안을 발의한 태관 스님은 "3월 임시회에서 세부법령은 처리 가능하다. 일단 채택여부부터 결정하자"고 의사를 밝혔다.

이월을 주장하는 종회의원 스님들이 이를 질타했고, 이에 태관 스님은 "종회에서 특위를 함께 만들고 종회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문 스님이 "안건이 이월 되더라도 일단 여론조사 결과라도 구체적으로 들어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월 주장 발언 속에 유야무야됐다.

특위 전원사퇴, 장기적 접근 필요

결국 직선제 종정 개정안은 이에 따른 종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 속에 이월됐다. 이런 상황에서 직선제특위위원장 태관 스님은 "이번 종회에서 종헌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고 본다. 더 이상 활동이 어렵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직선제 특위도 비공개 회의에서 위원 전원사퇴를 결의했으며 임시방편으로 특위 위원인 덕조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직선제 특위위원장 덕조 스님은 "내년 3월 종회 전까지 위원 스님들을 다시 선출해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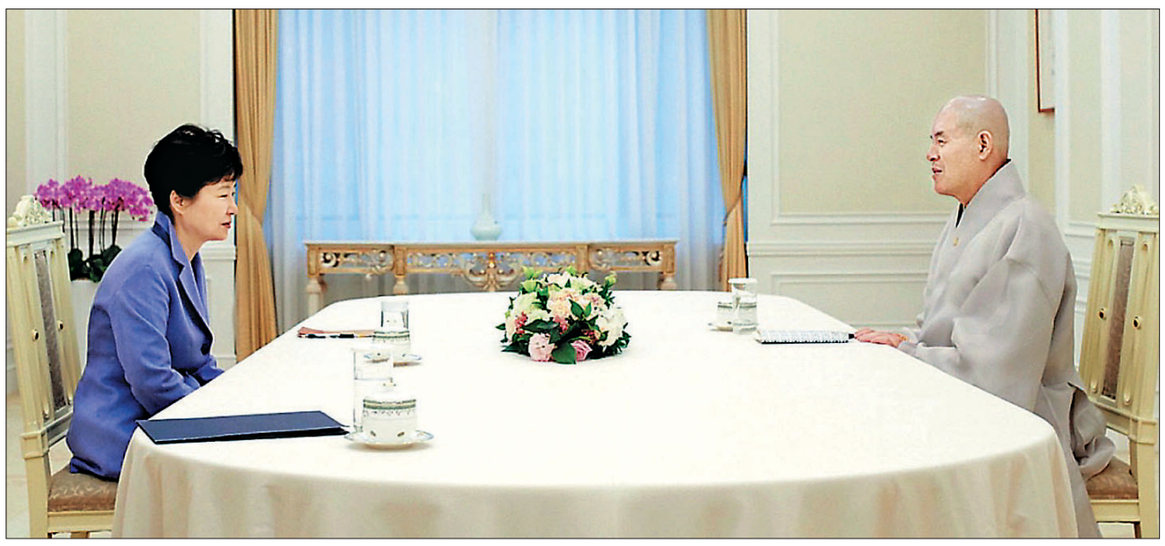
이번 법제화 실패와 특위 위원들의 사퇴에도 직선제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위위원으로 참여한 종회의원 정산 스님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로 대중들이 원하는 제도를 파악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하며 관심을 당부했다.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대중들의 열망이 드러났음에도 여러 이유로 법안을 이월, 사실상 현행 체제 유지를 선택한 종회와 집행부는 5%밖에 되지 않는 지지율 속에 광장의 열망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같다"며 "직선제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특위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던 목종 스님은 "그동안 직선제는 계파의 당략에 따른 주장이었지만, 처음으로 중립적인 특위 활동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냈다"며 "이번 특위에서 대중들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비록 도입이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종단이 준비해갔으면 한다. 향후 공직자선거법 전문가 등 외부 전문위원을 영입해 연구하고, 세부법령 기반을 다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은 11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계 원로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국정현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자승 스님, 박 대통령에 "꽃을 버려야"

11월 9일 청와대서 대통령 면담… 〈화엄경〉 인용 민심 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최순실 게이트'의 해법을 제시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의미의 〈화엄경〉 경구를 통해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민생안정과 국정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먼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어 〈화엄경〉을 인용해 '수목등도화(樹木等到花) 사재능결과(謝才能結果) 강수류도사(江水流到舍) 강재능입해(江才能入海)'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이 경구를 전하며 자승 스님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지혜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의견을 경청해 현 시국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가톨릭 염수정 추기경, 개신교 김장환 · 김삼환 목사를 만난 데 이은 두 번 째 종교계 원로 간담회다.

종무원들은 시국선언 발표
"대통령 퇴진 · 새누리 해체"

한편, 같은날인 9일 조계종 종무원 223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란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및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우리는 지혜를 모아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정농단 방관 및 국민기만 새누리당 해체 △야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판단 대신 국민 요구와 입장 대변할 것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성역없는 검찰수사 △부정 축재 · 특혜 환수 및 취소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정교과서, 위안부 한일합의, 개성공단 폐쇄, 한반도 사드배치 등 박근혜 정권서 이뤄진 모든 국가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과 동시에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노덕현 · 박아름 기자

전국 선원 동안거 결제

조계종, 2200여 수좌 100여개 선원서 정진

전국 주요 사찰과 총림이 일제히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동안거 결제일인 11월 14일 오전 전국 사찰과 선원은 동안거 입재법회를 봉행, 방부를 들인 수좌스님들은 3개월간의 용맹정진을 다짐했다.

조계종은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서 22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이 기간 동안 정진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모든 대중은 오직 마음의 빛을 돌이켜 대오견성 하겠다는 대발심과 대용맹심으로 각자의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화두의심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으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기 바란다"며 "금생에 견성하지 못한다면 불견성법을 어느 생에 또 만날 수 있으리오.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볼지어다"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정 · 총림 방장 법어 7면〉

1122호 INDEX

시방세계 5
천진암 · 주어사지, 종교화합



도반의 향기 14 · 15
유인수 · 인재 · 인조 쌍둥이 삼형제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3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7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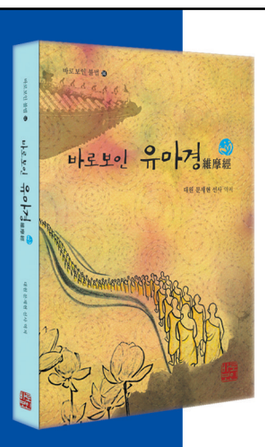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禪의 일상, 禪의 누림!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